

해외 석·박사 취득 쉬워진다

국내 대학 학위, 36개국 인정

‘고등교육 글로벌 협약’ 비준 완료
이달 중 유네스코사무국에 기탁
협약국가 간 고등교육 학위 인정
해외인재·유학생 유치촉진 기대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해외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학위 상호 인정’ 협약 국가가 확대된다.
해외 대학에서 학사를 마친 뒤 국내 대학 대학원에 진학을 위한 학위 인정
도 마찬가지로 가능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해외 유학생 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하 글로벌 협약)’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글로벌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이달 중 유네스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나라 간 학생 이동 장벽이 낮아지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고등 교육 학위의 상호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 당사국 내에서 고등교육 진입

시 학생이 보유한 학위·학점 등의 자격을 인정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9년 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돼 2022년 12월에 20번째 비준국(안도라)의 가입으로 2023년 3월에 발효됐다. 이번에 우리나라 37번째 비준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글로벌 협약에 참여하는 비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노르웨이, 니카라과, 에스토니아, 프랑스, 루마니아, 튜니지, 크로아티아, 교황청,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영국, 코트디부아르, 쿠바, 팔레스타인, 스웨덴, 슬로바키아, 일본, 카보베르데, 아이슬란드, 안도라, 호주, 우루과이, 핀란드, 예멘, 기니, 헝가리, 몰도바공화국, 세네갈, 조지아, 툭셈부르크, 에콰도르,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산마리노, 지부티 등이다.

글로벌 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 간에는 고등교육 학위를 상호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뒤 외국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기 쉬워지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2017년 이미 비준한 ‘고

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아·태지역 협약’과 유사하다. 이번 협약으로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적용 범위가 아·태지역을 넘어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학위가 국제 통용성이 확장되는 만큼,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국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 비준으로 외국 학위 및 자격의 통용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대학에 협약국의 고등교육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이 역량 있는 외국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약 비준으로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가 보다 촉진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프로젝트)’ 등 교육 분야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가학위정보센터 및 국내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협약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는 4일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구역 내 고적로변에 디자인 특화 주동을 계획하고, 열린 배차구간으로 바람길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연이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오류동 4번지 일대 ‘신통기획’

5.6만m² 부지에 1250세대 조성
매봉산 자락 둘러싸인 장점 살려

서울시가 저밀의 용도지역, 급경사 등 제약으로 개발에서 소외되던 구로구 오류동 4번지 일대를 ‘자연이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

서울시는 4일 ‘오류동 4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 5만5977.8m² 부지에 25층 내외, 약 1250세대 규모 주거공간으로 거듭난다.

이번 기획안은 ▲매봉산 자락과 지역을 잇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 구성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경관 특화단지 계획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교통 체계 마련 ▲지형을 극복하고 활용하는 살기좋은 단지 조성 등 4가지 계획 원칙을 담고 있다.

먼저, 매봉산과 온수근린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조성해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지형의 단차로 인해 주요 접근로인 고적로에서 진출입이 불편했던 대상지의 도로 체계도 본격 정비했다.

마지막으로, 약 35m의 고저차가 발생하는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 단지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사서 등 103명 신규채용

지방공무원 9급 경쟁임용시험 시행
공개경쟁 62명, 경력경쟁 41명 채용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4일 공고를 통해 ‘2025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공무원 채용인원은 공개경쟁 62명, 경력경쟁 41명으로 총 103명이다. 분야별로 교육행정 52명과 사서 6명 등 행정 직군 58명, 공업 5명과 시설관리 40명 등 기술직군 45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균형 인사 추진 및 사회적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8명, 저소득층 2명, 국가유공자 8명,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7명을 구분 모집한다.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96명) 응시원서는 오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교직원채용사이트

가 이뤄진다.

올해부터는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 시험 시험시간이 변경된다. 필기시험 출제 기준 변화에 따라 국어, 영어 과목 시험시간이 각 5분씩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과목 과목별 20문항(100문항) 씩 100분 시험에서 110분으로 변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2024년도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의 인권 침해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기시험(5과목, 110분 기준) 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도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고, 그 외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 않는 일부 과목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출제한다. 필기시험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생활문화 만든다

서울시교육청, 31일까지 한 달간
두근두근 신학기 공익 캠페인 진행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공익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 배려하는 관계 형성,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돋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된다.

‘두근두근 신학기’ 캠페인은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가나다’ ▲즐거운 학교생활 ‘만나다’ ▲학교 후 건강한 나를 위한 ‘신나다’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가나다’ 캠페인은 ‘가기 전 살피고, 나부터 멈추고, 다 함께 천천히’라는 교통안전 수칙을 제시해 학생과 운전자가 함께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상호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만나다’ 캠페인은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나부터 고운말 쓰기, 다른 의견 귀기울이기’라는 실천 수칙을 제시한다.

‘신나다’ 캠페인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신선한 바람으로 환기, 나 먼저 손 씻기, 다 함께 마스크로 예방’이라는 깨끗한 생활 습관을 권장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두근두근 신학기’ 온라인 캠페인 확산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SNS 이벤트,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컨설턴트뿐 아니라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전담할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 전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유선·문자로 안내하고,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졸업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 진로·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과학범 인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은 “졸업생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